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부산체육독독



Vol. **54**  
2024. 10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우영환 회장

**부산체육 꿈나무**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조팀  
손종혁 선수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북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매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 부산체육독독

CONTENTS

Vol. 54  
2024. 10

1

## 부산체육인

100세 시대 부산 소프트테니스로 생활체육 꽃 피우길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우영환 회장



2

## 부산체육 꿈나무

국기(國技)에 걸맞은 실력과 정신력으로!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3

## 부산체육 스타

링 위의 꿈, 날개를 펼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조팀 손종혁 선수



4

##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북구국민체육센터



# 100세 시대 부산 소프트테니스로 생활체육 꽃 피우길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우영환 회장

우영환 회장은 테니스와 인연이 깊다. 테니스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짧게나마 테니스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성적을 거두진 못했고, 학업에 열중하기로 결정하면서 멀어졌지만, 가장 정감 가는 스포츠가 테니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프트테니스와 테니스가 별개의 종목이긴 하지만 그 기본은 같기에 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직을 제안받았을 땐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소프트테니스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협회장직을 맡게 된 만큼 ‘제대로 협회를 경영해보자’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테니스를 소개하며 만면에 미소를 띄는 우 회장의 얼굴에선 소프트테니스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소프트테니스 강팀으로 손꼽힙니다.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 6관왕을 차지하며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달성

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2024년에는 사하구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이 대한소프트 협회장기대회에서 복식 준우승을, 2024년 한국실업연맹에서는 단체 준우승을, 그리고 제105회 동아일보대회에서는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실업팀인 부산 시체육회 소프트테니스팀은 2024년 종별선수권대회에서 복식 준우승, 2024년 국무총리대회에서 복식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줘서 늘 고맙습니다.”

그는 소프트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앞으로 접하게 될 체육인들에게 한마디 전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랠리를 이어가는 운동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소프트테니스 경기는 치열하지만 상대와 직접 부딪힐 일이 없어 신사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의 위험이 적으니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집 근처에 코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산책오듯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國 技  
**국기에 걸맞은 실력과 정신력으로!**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으로, 인기가 대단한 만큼 대회에서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그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무려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를 찾았다.

태권도는 품새, 겨루기, 격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겨루기'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태권도가 우리나라 체육계의 효자 종목이라면,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는 반여초등학교의 ‘자랑’이다.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는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소년체전에서 태권도 종목의 메달은 16개(남자 8개, 여자 8개)가 전부인데 2~3개의 메달을 한 학교에서 가져왔으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면 ‘지치지 않는 체력’, ‘끝까지 파고드는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황선정 코치는 전술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대표 경기와 외국 경기를 많이 본다고 한다. 동작을 따라 해보고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을 지도한다. 그래서일까. 선수들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편이라고.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시는 지도자와 지도자를 믿고 따르며 훈련한 선수들, 특히 선수들 스스로가 동기 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는 학교의 든든한 지원과 지도자의 열정, 스스로 하려는 선수들의 의지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그 결과 전국소년체전에서의 꾸준한 성과를 비롯하여 ‘국가대표 꿈나무’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선수가 선발되고 있다. 이번에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선발되어 세계 무대를 경험하였다. 황선정 코치와 선수들은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오길 꿈꾸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에서 우리나라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주역이 탄생하는 것도 시간문제 아닐까.

# 링 위의 꿈, 날개를 펼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조팀 손종혁 선수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자, 2018 주니어 아시아선수권 대회 2관왕에 빛나는 손종혁 선수를 만나 그의 기계체조 인생에 대해 들어보았다.

“큰아버지가 옛날에 기계체조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에너지가 넘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어린 저를 보고, 체조를 한번 해보자고 권하셨어요. 체육관 트램펄린 위에서 동작을 따라 해보면서, 체조의 재미에 빠져들었죠.”

큰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1학년에 기계체조에 입문한 손종혁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전국 꿈나무 체조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를 비롯한 4관왕에 오르며 단숨에 ‘체조신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소년체전 링 부문에서 금메달 3개, 도마 부문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내며 두각을 나타냈다.

“어릴 때 진짜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체조를 시작하면서 기술 연습을 하고 몸 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잘 안 되거나 기술에 실패한 적도 많지만, ‘한 번 더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손종혁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양학선 선수를 비롯한 부산체육회 소속 선수들과 함께 단체전에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은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6종목에서 선수들이 연이어 펼치는 역동적인 경기로, 팀원들의 점수가 합산되어 승패가 결정된다. 실시간으로 엇치락뒤치락하는 점수는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동료들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커요. 제가 실력 향상이 잘 안 될 때 학선이 형이나 주장 형이 옆에서 자세도 봐주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면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운동에 동기부여도 되고요.”

손종혁 선수의 꿈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무대에서 메달을 거는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경기에 임한다는 손종혁 선수. 링 위에서 빛날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7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건강을 꽃피우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북구국민체육센터를 만나보았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10월에 개관하여 14년 차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상근직 17명과 파트직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평균 약 2,500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의 임직원들은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북구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인 만큼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체 회원 중 약 80%가 수영장 이용 회원이지만 에어로빅실, 헬스장 등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줌바로빅, 에어로빅, 차밍라인댄스, 건강스트레칭, 바디체인지,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오랜 기간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장기 근속 직원과 고정 회원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직원들은 회원에게 친절하고, 회원들은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덕에 센터 분위기는 늘 훈훈하다.

체육센터 개관 14년차에 접어드는 지금,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5년에는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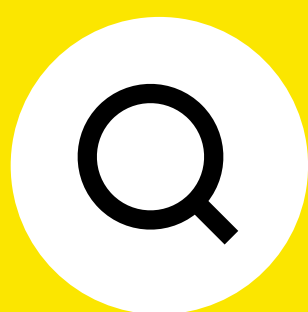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부산체육 톡톡, 언론보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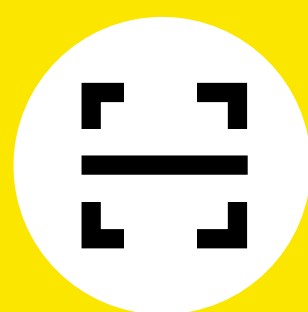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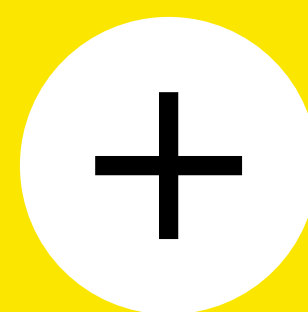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